

북·미 오늘 '하노이 선언'... 한반도 평화시대 열린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6일 베트남 하노이에 도착해 실무대표단의 보고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27일 하노이 정부청사에서 응우옌 쉰언 쪽 베트남 총리와 만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트남 국기를 들어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의 결정적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 제2차 미·북정상회담이 27일 시작했다. 광주·전남 지역민들은 미북 정상이 이번 회담을 통해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합의점을 마련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관련기사 2·3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날 오후 베트남 하노이에서 짧은 단독회담 및 친교만찬을 시작으로 2차 미·북 정상회담 일정에 돌입했다. 미·북 정상이 이번 회담을 통해 지난해 싱가포르 1차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완전한 비핵화' 약속의 실질적 이행조치 도출에 합의할 수 있을지 전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두 정상이 회동하는 것은 지난해 6월 싱가포르 1차 정상회담에 이어 8개월여 만이다. 두 정상은 이날 오후 6시30분 짧은 인

평화선언·연락사무소 개설·영변 핵 봉인·유해송환 등 합의 북 - 원유 수입 제한 폐지·남북경협 제재 대상서 면제 요구 미 - 영변 핵 시설 폐기 및 검증 가능한 비핵화 로드맵 달라

사를 나누면서 사진 촬영을 한 뒤, 20분 가량 통역만 배석한 상태에서 대화를 나눴다. 이어 오후 7시부터 1시간 30분가량 친교만찬에 들어갔다.
두 정상은 이른날인 28일 단독·확대 정상회담을 갖는다. 또 이날 오후에는 회담 결과물을 담은 '하노이 선언'에 서명하고 공동 기자회견에 나설 예정이다. 두 정상은 연속되는 회담에서 '하노이 선언'에서 서로 유리한 내용을 담기 위한 힘 겨루기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양국의 의제 협상팀이 합의한 것은 △평화선언 △연락사무소 개설 △영변 핵

봉인 △유해송환 등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α'를 집어넣기 위한 양국의 선택이 충돌할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은 비핵화 조치로 영변핵시설에 대한 포괄적이고 검증 가능한 봉인(CVC)을 선언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나온 결의안을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원유 수입 제한과 금강산 관광 등 남북경협을 제재 대상에서 면제해달라는 입장이다.
이에 미국 측은 북한의 영변 핵 시설 폐

기와 검증가능한 비핵화 로드맵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이번 회담이 실패로 끝날 경우, 미국과 북한 모두 큰 부담이라는 점에서 양국 모두 한 발씩 물러나 합의점을 찾지 않느냐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양 정상이 마지막 결단으로 풀어야 할 실타래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점에서 '완전한 비핵화'의 목표 달성에는 다소 미진한 결과가 나오지 않느냐는 관측

이 제기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김의 검정외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을 두고 '빅딜이냐, 스몰딜이냐는 논란이 있는 것과 관련, "스몰딜이 되면 성공하지 못한 회담이고, 빅딜이 돼야 성공한 회담인가"라고 반문하며 그런 평가는 부적절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 대변인은 우선 "협상 당사자인 북미가 빅딜·스몰딜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는다. 미국 언론에서도 작년 5월에 한 번 스몰딜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뒤 쓰지 않고

있다"며 "우리 언론만 쓰는 개념이며, 그 개념조차 기사마다 다른 기준을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사 그런 개념을 인정한다고 해도, 무 자르듯 자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연속적인 개념이며, 빅딜 안에 스몰딜이 포함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의 이런 언급은 북미정상회담 결과 현재 국내 언론이 얘기하는 '스몰딜'이 이뤄지더라도, 이는 장기적인 협상의 과정일 뿐 실패로 규정할 수는 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임동욱 기자 tuim@연합뉴스

황교안 신임 자유한국당 대표 선출 '5·18 망언' 김순례 최고위원 당선

황교안 전(前) 국무총리가 27일 자유한국당 신임대표로 선출됐다. 황 전 총리는 이날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제3차 전당대회'에서 50%의 득표율로 이번 없이 당 대표 경선 1위를 차지했다. <관련기사 4면>
개혁보수를 기치로 내세운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31%를 득표해 2위를 기록했다. 오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고배를 마셨

지만 30%가 반영되는 일반국민 여론조사에서 50.2%를 얻어 1위를 차지하면 서 약간의 가능성은 보여줬다는 평가다.
태극기부대를 등에 업고 현장 분위기를 주도했던 김진태 후보는 18.8%를 득표해 '잠깐 속 태풍'에 그쳤다는 평가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3·1 운동 100주년

제54회 3·1 마라톤

3월 1일(금) 오전 8시30분 문화전당 출발... 코스 안내 ▶18면

"투자비 돌려줘" 캠프의 생때 ▶6면
김여울 기자 KIA 오키나와 캠프 가다 - 김윤동 '마무리의 꿈' ▶20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The 18th FINA World Championships Gwangju 2019

제18회 2019광주FINA세계수영선수권대회



DIVE INTO PEACE

평화의 물결 속으로

선수권대회 : 2019. 7. 12. ~ 7. 28. (17일간)
마스터즈대회 : 2019. 8. 5. ~ 8. 18. (14일간)

장소 : 광주광역시, 여수시 | 참가 : 200여개국 15,000여명
종목 : 경영, 다이빙, 수구, 아티스틱 수영, 오픈워터 수영, 하이다이빙

Official FINA Partners



Institutional Partners

